EAI 여론브리핑 제27호

(엠바고 : 2008. 4. 20. 21:00 GMT, **한국시간 3.21 오전 6시**)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제4차 "석유에너지 고갈 위협 : 인식과 대안"

[참여국가 : 16개국]

유 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프랑스
아 시 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북 남 미 미국 멕시코
중 동 아제르바이잔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이집트

※ 현재 일부 국가에서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종 22개국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16개국 14,896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만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2월/ 한국조사 "**한국리서치**"

[발표 주제]

1. **제3의 오일쇼크 우려하는 국제사회 :** 세계인의 향후 10년 유가 전망 "매우 비관적"
2. **국제여론과 고유가의 정치경제학 :** 미국 및 OPEC 국민여론 고유가 압력으로 작용할 듯
3. **한국인의 에너지 위협인식 분석 :** 세계적으로 유가에 민감한 한국, 중산층 우려가 더 커

[발표계획]

차수	한국발표	주제	비고
1차	3월 8일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2차	3월 20일	인권2. 중국의 대티벳정책	6개국 조사
3차	3월 22일	인권3. 인종차별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4차	4월 21일	현안1. 오일쇼크의 위협	국제유가 폭등
5차	5월 2일	인권4. 언론의 자유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의 날
미정	6월 26일	인권5. 고문의 인권침해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미정	미정	인권6. 낙태	
미정	미정	현안1. 정치적 민주주의	정부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미정	미정	현안2. 정책결정과 여론	각국 정책결정에 여론의 역할
미정	미정	현안3. 국제위협과 리더십	세계 주요 지도자 평가/중동평화와 UN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o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계층화된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연 구 팀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이곤수(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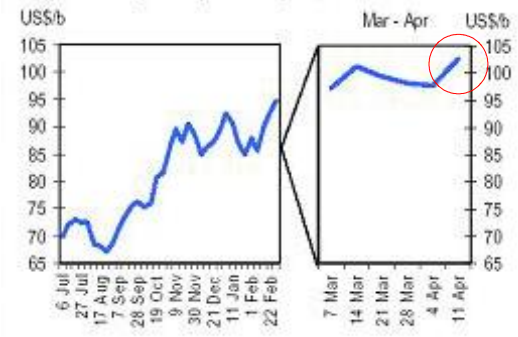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주제1. 제3의 오일쇼크 오나? : 세계인의 향후 10년 유가전망 비관적”

□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유가 상승 전망 일치, 석유 소비국과 생산국간 온도차 뚜렷
- 5대륙 16개국 14,896명, 향후 10년 “유가 상승할 것” 79%(매우 오를 것 55%)
- OECD(미국 • 영국 • 프랑스)국민 유가상승 전망 높고, 주요석유수출국(나이제리아 • 구소연방 국가 • 이란 등) 국민은 상대적으로 낮아
- 신흥강국 BRIX(중국, 인도, 러시아) 국민 유가상승 폭 클 것이라는 전망 낮아

□ 한국 87%(매우 오를 것 56%, 약간 오를 것 31%)는 국제유가 비관, 조사국 중 4위

[그림0] OPEC 08‘4월 오일시장 보고서



세계인에 대한 고유가 시대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다. 뉴욕타임즈지는 이미 2007년 11월 제3차 오일쇼크의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월례보고서에 따르면 4월 14일 오펙기준유가(basket price)가 배럴당 104달러를 돌파했다. 5대륙 16개국 국민중 무려 79%가 이러한 고유가 행진이 향후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WPO(월드퍼브릭오피니언)이 주관하고 한국에서는 경향신문과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 참여한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결과다.

주목할 점은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있는 OECD국가일수록 장기적인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강하고 높다는 것이다. 현 세계경제의 부침을 좌우하는 미국 국민 중 63%는 향후 10년간 유가가 매우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약간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23%나 됐다. 영국 국민 역시 매우 오를 것으로 본 응답자가 58%, 약간 오를 것이라는 응답자가 27%였다. 현재 경제 활로 찾기에 부심하고 있는 프랑스 국민들은 무려 81%가 국제유가가 향후 10년간 크게 오를 것이라고 답해 국제유가 상승에 가장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매우 오를 것이라는 강한 비관적 응답이 56%, 약간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31%로 전체 응답자의 87%가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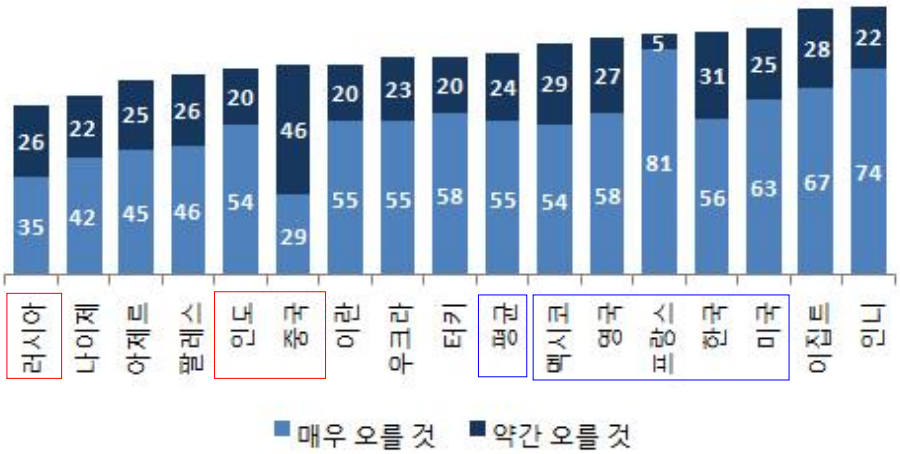
반면, 국제유가의 상승을 반길 수밖에 없는 석유수출국 국민들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이 달랐다. 석유수출 국의 국제유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비율과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란, 나이제리아 등의 OPEC 소속주요 석유수출국, 러시아 □ 아제르바이젠 □ 우크라이나와 같은 비OPEC 수출국 등은 오히려 러시아 국민은 OECD 국가들에 비해 국제유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들 국가의 여론이 국제유가 상승에 비관적일수록 석유 증산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해당 국 정부로 하여금 석유 공급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정책을 선호하게 하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 인도 국민들은 이들 국가가 석유 자원에 대한 의존이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유가상승 전망이 높지 않았다. 중국 국민은 유가가 매우 오를 것이라는 응답과 약간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합이 75%로

전체 평균 79%에 못 미쳤다. 그 중에서도 매우 오를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9%에 그쳐 16개 조사국 중 가장 낮은 결과로서 고유가에 대한 우려의 강도로만 보면 가장 비관적 전망이 낮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중국과 최근 자원외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인도국민들은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려의 강도는 높지만 조사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오를 것(54%), 약간 오를 것(20%)이라는 응답을 합해 고유가가 유지될 것이라는 응답이 74%였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석유수출국들이 향후 인도네시아 국민이 향후 10년간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국가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최근 석유자원 확보를 위한 각 국의 경쟁 속에서 석유수출로 재미를 보고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인도네시아의 국민들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바램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그림1] 16개국 국민 향후 10년 후 비관적 유가전망 “매우 오를 것 + 약간 오를 것”(%)



주: “매우 오를 것”, “약간 오를 것”, “현상 유지”, “약간 내릴 것”, “매우 내릴 것” 선택지 중 오를 것 전망한 응답자 비율

주제2. 국제여론과 고유가의 정치경제학

□ 세계 여론, 석유고갈우려가 고유가 전망으로 이어져
□ 한국국민, 석유고갈 우려 세계 최고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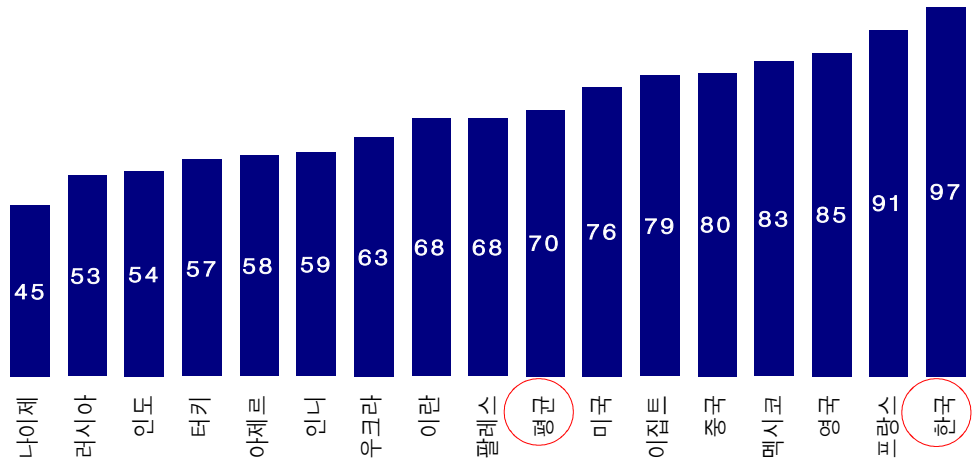
• 석유고갈에 대한 우려 "석유자원 고갈될 것" 70%, 석유 생산국보다 소비국에서 높아

장기 유가에 대한 상승 전망은 최근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어온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16개국 전체 응답자 평균 70%가 "석유자원의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할 것을 주문한 반면 "미개발 유전이 충분하다"고 본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처럼 석유가 세계적 차원에서 주 에너지원으로 유지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 전망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를 주로 소비하는 국가들에서 석유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았고,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고 있는 나라 국민들은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약했다. 특히 해외 무역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은 무려 97%가 석유자원 고갈을 우려하고 있다. 프랑스가 91%, 영국 85%, 멕시코 83%, 미국 76%로 이번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에서는 모두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자원외교에 총력을 걸고 있는 중국의 국민들도 80%가 석유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APEC 회원국인 나이제리아(45%), 인도네시아(59%), 이란(68%)에서는 석유자원 고갈 우려 비율이 국제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APEC 회원국은 아니지만 단일국가로는 석유 수출량이 2위인 러시아를 비롯한 아제르바이젠,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 소연방 국가 국민들 역시 석유자원 고갈 문제를 체감하는 강도가 석유 소비국에 비해 약했다.

[그림2] 석유자원 부존량에 대한 평가 "고갈될 것" 응답비율(%)



주: "고갈될 것"과 "충분한 미개발 유전이 있다"는 선택지 중 고갈될 것이라는 응답비율

□ 오일쇼크에 대비한 각국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 엇갈려, "정부가 대비" 53%

• 석유수출국 • 미국/멕시코 국민 – 자국 정부 석유고갈에 대한 대비 미흡 지적
• 여론과 고유가 압력으로 작용하는 메카니즘
석유고갈대책을 촉구하는 각국 여론→ 석유생산국 공급 확대 억제요인 → 고유가 유지

석유자원의 고갈이 임박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각 국 정부의 자원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각 국 정부의 오일정책에 대한 그 나라 국민들의 평가는 어떠할까? 갈수록 각국의 주요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일 단면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자국 정부가 석유자원 고갈에 잘 대비하고 있는 지 물어본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주목할 결과가 드러난다.

조사국 대부분에서 국민들의 석유자원의 고갈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공통된 우려(전체 70%)에 비해 정부가 석유고갈 시대에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6개국 전체 응답자의 53%만이 자국 정부가 현재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린 반면 35%는 여전히 석유부존 자원이 충분하다는 인식하에서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석유자원의 고갈 우려가 높은 나라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나라 국민들에 비해 자국 정부가 이에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우려가 가장 높았던 한국 국민들은 자국 정부가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믿는 비율이 79%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영국, 프랑스 등의 OECD 국가, 중국, 이집트 등 석유에 대한 위협인식에 맞게 정부가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믿고 있다. 다만 주요 석유수출국이면서도 석유자원의 위기에 우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란 및 인도네시아에서는 정부가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높았다. 이란 국민의 63%, 인도네시아 국민의 61%가 자기나라 정부가 석유고갈 시대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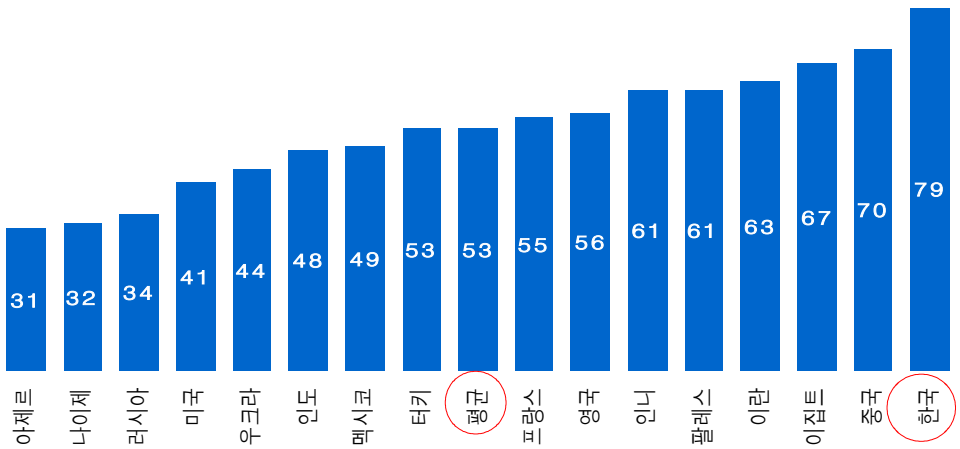
각 국 석유정책 평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세계경제를 좌우하는 미국과 산유국 중에서도 석유수입을 전혀 하지 않은 순 석유수출국(net oil exporter) 국민들이 정부의 석유자원 고갈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국민들 중 정부가 석유에너지 고갈에 대비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41%에 불과한 반면 충분한 부존량이 있다는 가정하에 정책을 펴고 있다는 평가가 57%에 달했다. 석유 순수출국인 아제르바이잔(31%), 나이제리아(32%), 러시아(34%), 멕시코(49%)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이 국제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국제유가형성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들로서 이들이 석유공급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국제유가는 큰 변동을 겪게 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여론이 정부가 석유에너지 정책에 있어 방만하다는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은 이들 정부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론을 고려할 경우 석유공급확대 정책을 펼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 다른 유가 추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러시아나 나이제리아 등 주요 산유국에서는 국민들 스스로 석유고갈에 대한 우려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비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멕시코처럼 국민들의 다가오는 오일쇼크에 대한 우려는 높은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 경우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현재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며 세계경제 및 각 국 경제를 긴장시키고 있는 고유가 행진을 바라보는 세계인의 시선을 매우 어둡다. 석유자원의 고갈이 임박해가고 있고 유가의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결과만 본다면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 공급을 확대하여 가격안정을 꾀해야 할 인센티브는 찾기 힘들다. 특히 국민들의 석유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강하지만 정부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강한 미국, 멕시코 등의 국가들에서는 여론이 에너지 공급확대 정책을 억제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다만 러시아나 나이제리아로 대표되는 대부분의 석유수출국 국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석유고갈에 대한 우려가 약하기 때문에 이들 나라에서 여론이 정부의 석유공급량을 줄이라는 압력으로 직접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3] “자국 정부가 석유고갈에 대비하고 있다”는 응답비율(%)



주 : 1. 정부는 미개발 유전이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에너지 정책을 펴고 있다. 2. 정부는 석유자원 고갈될 것이며 대체에너지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중 2 번 응답 비율

주제3. 한국인의 에너지 위협인식 분석

□ 세계적으로 유가에 민감한 한국,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위기의식이 두드러져
□ 정부의 석유에너지 관련 정책이 올바른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평가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은 전세계차원에서 석유에너지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고(97%),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인식(87%, 매우 오를 것 55% + 약간 오를 것 31%)이 매우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국민들 사이에 인식의 공감대가 큰 이슈로 볼 수 있다. 천연자원이 부족하고 해외 원자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무역구조 상 안정적인 에너지원의 확보는 국가경제의 사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산층과 젊은 세대의 위기의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우선 향후 10년간 유가 전망 질문에 대해 “매우 오를 것”이라고 답한 비율만 비교해보면 전체 응답자 평균은 55%였지만 월 소득 200-399만원 수준의 중산층이 57%, 400-499만원 수준의 중상위 층에서 큰 폭의 유가상승을 전망하고 있다. 중산층 상당수가 자가용을 보유하고 이나 난방 등 기름수요가 적지 않지만 유가상승 시 이를 감당한 여력은 크지 않은 층에서 유가 전망이 더 비관적인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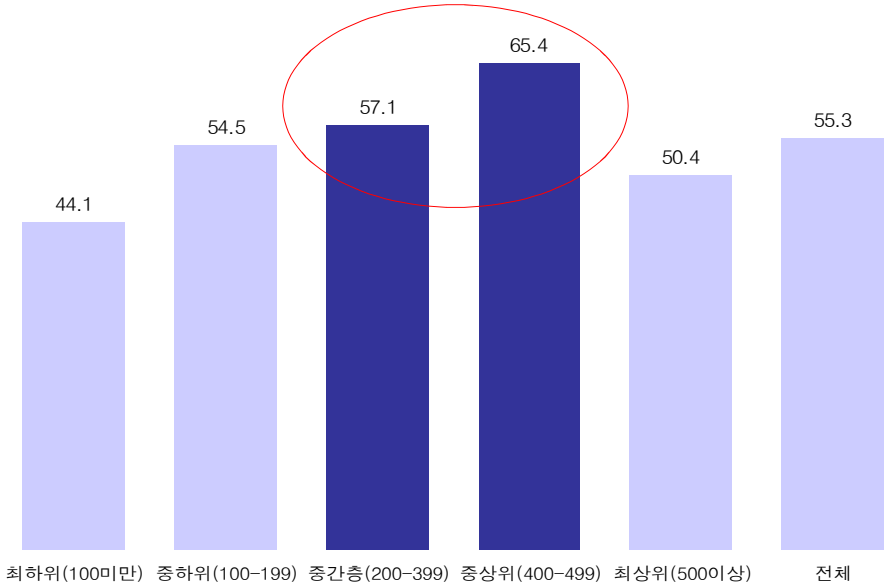
세대별로 보면 20-30대 젊은 층일수록 국제고유가 시대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 국제유가가 크게 오를 것이라는 응답비율은 40대 가 평균 수준인 55%, 50대에서는 52%, 60대 이상에서는 43%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20대에서는 60%, 30대에서는 63%로 다소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세대는 소득분위로 보면 중산층에 속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세계화 시대 국제사회의 동향에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과 정보를 접하고 있는 세대로서 고유가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국제유가동향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국민들의 경우 고유가 시대와 관련하여 국제유가 상승의 가능이 높다고 보면서도 정부의 석유에너지 전략에 대해서는 79%가 바람직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역시 세대나 소득계층별로 보면 인식강도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현재 석유자원 고갈에 대비하여 대체 에너지 개발에 주력하는 입장이라고 보는가 아니면 석유자원이 충분하다는 인식하에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중산층과 중상위 층에서 정부가 석유자원의 고갈에 대비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인식이 82%로 최하위 계층의 74%, 중하위 계층의 74%를 상회하고 있다. 중상위 400만원대 소득계층의 경우도 79%가 정부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유가를 불안해하는 중산층은 정부의 석유에너지 수급정책에 대해 거는 기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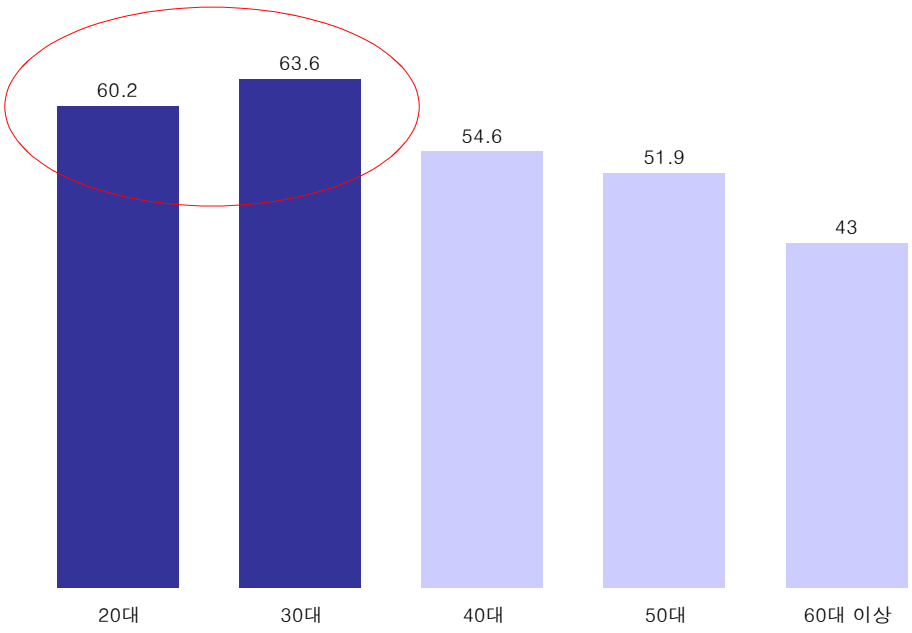
그러나 세대별로는 다른 응답패턴을 보인다. 우선 40대 이상의 경우 80% 이상이 정부가 석유고갈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20대의 경우 이 비율이 65%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 유가상승의 폭이 클 것으로 본 20, 30대 젊은 층 중에서 30대의 경우 85%가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20대의 비판적 여론과 대비된다.

자원외교의 중요성은 이미 어느 역대 정부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었던 주요 정책 영역 중의 하나지만 현재 국제유가의 급변과정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각별해지고 있다. 국민여론도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세대별 소득별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수급과 유가 안정과 관련한 국민적 차원의 위기의식과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새 정부가 정책과 실적으로 화답할 시점이다. 대통령의 주변국 순방 일정에서 북핵 문제나 한미동맹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하지만 국민들은 어떤 자원외교의 성과를 가져올지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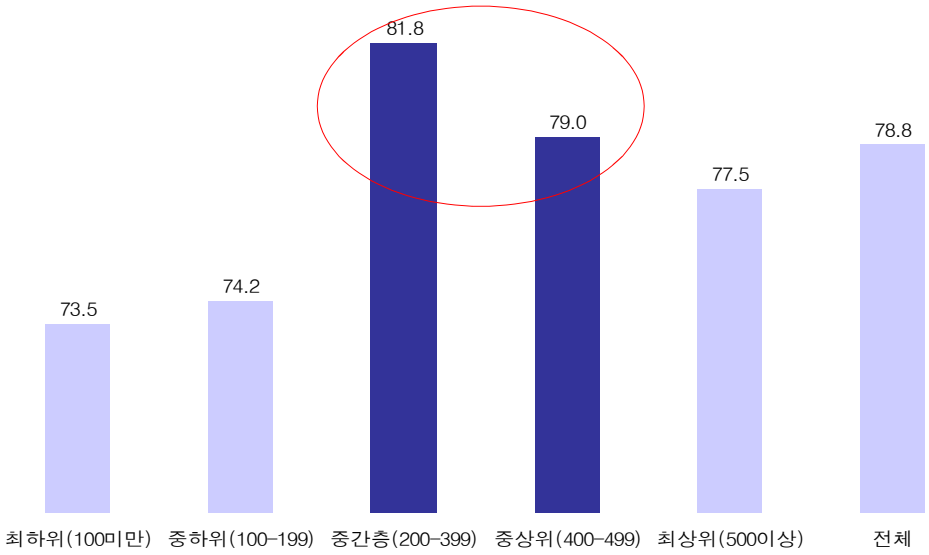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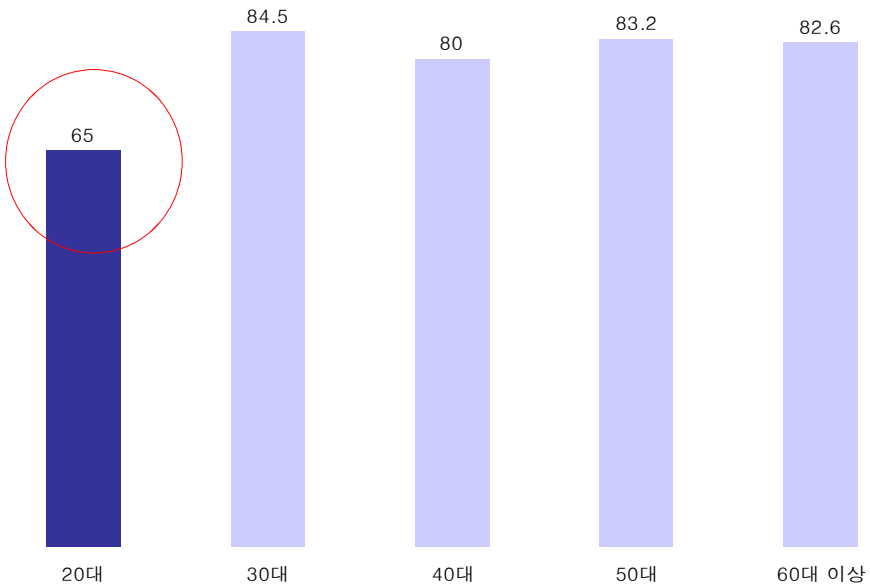
[그림5] 소득분위별 향후 10년간 유가 전망 "매우 오를 것" 응답비율(%)



[그림6] 세대별 향후 10년간 유가 전망 "매우 오를 것" 응답비율(%)



[그림7] 소득분위별 정부 석유에너지 정책 평가 “고갈에 대비하고 있다”(%)



[그림8] 세대별 정부 석유에너지 정책 평가 “고갈에 대비하고 있다”(%)